

#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또 다른 편집이다

## 행복한 책 읽기

강상중 '마음'  
(사계절 권)

### 에디톨로지

김정운 지음

상상해 보라. 아름다운 여인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누워 있다. 여인은 팔로 가슴만 살짝 가리고 있으며, 배꼽 아래 그곳에는 작은 아이пят이 놓여 있다. 과연 당신이라면 이 여성을 바라 볼 것인가, 아닌가. 또한 아이пят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пят이 가리고 있는 곳을 상상할 것인가. 그럼 당신은 변태인가?

추천받은 입담으로 문화를 풀어 놓는 김정운 문화심리학자는 자신의 신간 '에디톨로지'를 통해 "쳐다보지 않은 게 변태"라고 답한다. "이정도 '구리'면 교수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듣는 문화심리학자다운 해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각기에 집중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



러운 현상이며 본능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과정에 에디톨로지(Editology)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에디톨로지는 일종의 '편집학'(編輯學)이다.

흔히 신문이나 잡지의 원고를 모아 지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한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통틀어 에디톨로지라고 표현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뉴스를 모으고 편집하는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던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

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줄 알아야 한다.

21세기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능력 역시 따지고 보면 '편집 능력'이다. 이처럼 에디톨로지는 편집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방법론이다.

'에디톨로지'는 그저 쉬는 게 아니다. 인간의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편집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또 저자는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주목한다. 20세기 말 마우스의 발명은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다. 마우스는 날아다니는 생각을 잡는 도구다. 덕분에 인간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텍스트의 감옥을 벗어나게 됐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저자가 말하는 창조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창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구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한 것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또 다른 편집이다"고 강조한다.

또 에디톨로지를 독일 학생들의 메모 습관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한국 학생은 노트에 필기하는 것과 달리 독일 학생은 쪽지나 카드에 정리한다.

노트와 카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노트는 정리된 순서대로 찾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러 장의 카드에 기록된 정보는 필요할 부분만 찾아 내기 편하다. 노트는 재구성할 방법이 없지만 카드는 다양한 편집도 가능하다.

이처럼 편집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지식이며, 이를 자유롭게 편집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한다.

<21세기 북스·1만8000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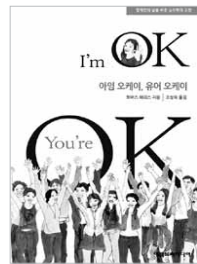
▲창조성, 신화를 다시쓰다=창조성은 신화에 둘러싸여 있다. 신화에서 벗어나야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책에서는 엄격한 연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창조성을 둘러싼 신화의 정체를 밝히고, 모두가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10가지 신화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최고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공정, 프로그램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하게 담아낸 책 박제가의 '북학의'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글만을 엄선하고 편집하고 해설을 붙였다.

<돌베개·1만2000원>

▲아이 오키에, 유어 오키에=1500만부가 넘게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1970년대 형성된 심리학의 한 분야인 '관계 맺기 분석'에 대한 개론서다. 관계 맺기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이 갈등과 인생 드라마, 나아가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교차적' 관계 맺기 분석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이 책의 저자 토머스 헤리스는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지점으로 독자들을 안내



한다. <아름드리미디어·1만3800원>

▲기업가적 자아=책은 현대인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프로그램의 결과이며, 그 불안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지금의 사회가 작동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언급하고 빈번히 원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책의 독해는 쉽지 않다. 내용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거저에 놓인 통치성의 맥락을 누구보다 깊게 파고들 수 있다.

<한울아카데미·3만6000원>

▲동이 한국사=중원문명의 창시자인동이(東夷)와 한국과의 관계, 한반도 왜의

실체, 백제의 중원 점령 배경 등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국 고대사의 많은 미스터리를 실증 자료와 논리를 토대로 명쾌하게 풀어낸 책. 저자는 한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심의 '국가사'가 아닌 한국인의 공간이자, 고대 중원 문명의 창시국인 상나라(은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족'과 '맥족'이 만들어 간 역사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새롭게 해석해 냈다.

<책미래·1만8000원>

▲그가 돌아왔다=히틀러가 현재 다시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사회 풍자 소설. 2012년 독일에서 출간 즉시 140만 부, 오디오북은 52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편협한 히틀러의 분노와 광기는 기독교에 대한 풍자로 재해석돼 마침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유머와 풍자를 통해 보여주는 블랙코미디다. 책의 말미에는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와 '히틀러의 성공시대'로 유명한 김태권 작가가 60페이지의 만화를 그렸다.

<마시멜로·1만3800원>

### 어린이 책

▲인터넷에 빠진 병아리=저자 진 윌리스와 그림 작가 토니 로스가 '치킨 리틀'이라는 전래동화에서 영감을 얻어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냈다. 인터넷에 빠진 병아리의 모습을 귀여운 그림으로 보여 주며 인터넷 중독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한 벌,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이라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생활이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이고 지구를 살리

는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환경동화책. 당장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동시에, 왜 환경을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 준다.

<살림어린이·1만2000원>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나와 내 친구들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왕따 문제. 책은 이 '왕따 문제'를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낸다. 따돌림을 당하는 헬레네의 아픈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왕따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책과공나무·1만5000원>

▲돌봄의 재앙=1학년 고민준의 돌봄교실 적응기. 2학기가 되자마자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는 고민준. 엄마가 재직업에 하는 바람에 돌봄 교실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데리러 오는 저녁 7시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형, 누나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다. 민준이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책읽는곰·9500원>

## 결국 남는 것은 마음

희망 대신 어떤 식으로든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청년은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죽음과 결부되어 떠올라 다른 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메일로 내밀한 아픔을 치유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전혀 다른 공간에서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대화를 이어간다.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서 공명을 일으키게 된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는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 마지막에 저자는 청년에게 편지를 써놓고 결국에 못 보내고 만다.

"보내지 말자. 보내지 못한 메일이 마음속에 꼭꼭꼭꼭. 나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이라는 이름의 폴더 속에 가만히 파일을 넣었다."

청년을 통해서 저자인 가족사의 상흔이 포개지는 대목이다. 존재하지 않는 '간직'이라는 방법으로 영원을 마음속에 두게 된다. 그래서 제목을 '마음'으로 정한 것 같다.

우리는 청년의 행동을 보면서 세월호 죽음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을 것이다.

일본이 안고 가는 원전사고, 대지진, 쓰나미 등 대참사 속에서 이 책은 죽음으로 인한 상처, 구원과 치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절박한 물음을 제시했으며, 개인의 불안과 고통을 둘러싼 공허한 마음을 한껏 대변했다. 불의의 '재난'이 활취고 간 상처 입은 마음들을 보듬는 작품이 되어 수많은 일본인들을 위로한 책이다.

벌써 내일이면 십일월, 아직은 두 달이나 남은 십일월! 벌써와 아직이라는 말 말고도 올해의 사월은 분명 잔인했다. 비단 우리의 아픔이 사월뿐이겠는가. 우리도 각자 마음 풀더를 만들어 파일을 간직해보면 어떨까.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CHANNEL</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b>18</b></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b>20</b></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b>14</b></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b>18</b></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b>16</b></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b>13</b></p> <p>IPTV <b>18</b></p>
--	--	--	---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